

AUTHOR 이근삼

TITLE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70년대 교육의 전망

IN 개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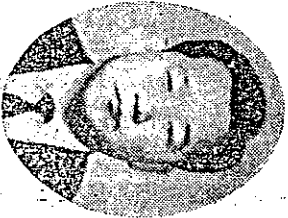
39호 (7, 1970): 5-10.

개혁주의 입장에서본

70년대 교육의 전망

이근삼

〈蔚淵神學院 教授 神博〉



또한 그 「실질적인 결과」의 표준은 무엇에 두고 생각하느냐는 것도 기독교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어진다.

「교육」이란 말은 우리가 일강 생활에서 유서, 부적을 막론하고, 교육자 피교육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많이 사용하는 어휘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의(定義)나 기초, 목표, 평가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오사이는 이것을 인식하는 나머지 「교육부재」(教育不在)라는 말을 자주 쓴다.

「교육부재」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새롭지도 않다. 그것이 세상스런 리의 의아스럽게 생각되거나 놀란 만한 것은 아닐만큼 우리 나라의 교육의 허점이 타성을 자아낸 정도로 상식화한 것 같다. 현대는 각종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교사와 학생수도 그만큼 많아졌는데 「교육부재」란 말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는데 비하여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로 거두고 있는가? 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말할 수 없다.

오늘날의 같이 발전한 민병이 발달되고 특히 오늘날의 한국과 같이 후진 국가로부터 중진 국가로 미약하게 발전하고 있는 요즘에 있어서 교육의 사회적 사의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사회적 사의성이 인위적으로 호화스러운 자리에 취적해서 수업을 올리우고 나아가서 관찰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이 거의 지배적인 것 같이 보인다. 「정의 도덕 종교 운운해서 살기 어려워 온 것 보다 거저 대중의 가난대로 하길 면하게 하는가?」하는 식의 처세를 택하기 좋아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수행 의식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있을 때 사람은 음정적으로나 남의 손을 빌려서 견행하기 인수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용되는 지성은 오히려 무지보다 더 악질적이다. 이것이 「인격 교육의 부재」, 「세 사람 형성의 불가능」이라는 교육의 난제를 일러 준다. 이러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70년대의 교육 전망이라는 화제를 두고 생각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먼저 우리는 개혁주의 교육의 본질과 이념에 관하여 교육의 정의, 교육의 기초, 교육의 목표, 교육의 평가들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교육의 정의(定義)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 볼 때에는는 분명하고 완전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바른 기독교적 교육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전제 조건은

① 창된 신념이나 지식을 가질려면 하나님께의 주권적 사역(主權的 使役)이 있어야 한다. 지식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은 사의이며,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중심적 교리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타락 이전에 가졌던 그 위치에 그들의 후손된 우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려면 삼위 일체 하나님 의 계 창조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② 이 하나님의 계 창조 역사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책임을 성경이 역설하는 중심적 교리이다.

③ 우리가 교육의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아담, 아담과 하

와, 아담과 물질적 자연 세계간에 있는 관계와 그에 대한 이해(理解)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계와 이해를 회복시키려면 기독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관계와 이해를 계속적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교육은 그리스도들에게 성화(聖化)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은 믿음으로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창된 교육의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 「교육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동료 인간, 사람과 물질, 자연 세계간의 참된 관계와 이해를 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시 말하면 「교육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한 처사와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생명 안에 자라고 발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다.」 어떤 과정, 성장, 발전도 진리를 떠나서 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그를 통하여 하는 교육이 아니면 어느 것도 참된 교육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거짓된 교육이 아니면 잘못된 교육이라 할 것이다.

2. 교육의 기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해하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것, 그것은 교육 체계를 세울 기초를 신비하는 일이다. 교육의 다른 요소들은 그 기초 위에서

는의 되어야 할 것임으로 이 기초의
신체는 교육의 진전함과 표능을 위
해서 평면한 검토를 가져야 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다
루는 교육 기초학은 「역사적 기초」
[사회적 기초], 「철학적 기초」, 「심
리학적 기초」를 말한다. 여기서 이
것들은 세밀히 심미관 지식이 허락
되지 않으므로 일일이 말하지는
하겠으나 교육 기초학에서 말하는
여러 기초들은 각각 여러가지 이론
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 이
느 것을 배하여 자기의 이론으로 삼
을 때에는 반드시 그 학자나 학생
의 미더는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관적
표준이 신체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역사적 기초나 사회적 기초나 철학
적 기초나 심리학적 기초가 교육의
기초는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단
지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통하여 그
소 배울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그것
들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진평을 완전한 위락할 수 있
는 참된 기초를 가지고 그것으로 역
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헌학 등
을 연구 계몽해야 한다. 모든 교육
의 이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 뿐이다. 그 외에 다른 것
은 있을 수가 없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
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화무
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으며 성
경 자체가 모든 신앙과 모든 지식
의 기초가 되고 교육에 관한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됨을 믿는다.

우리 신자는 「모든 성경은 하나
님의 영감으로 된 것」(딤후3:16)을
읽을 때 성경이 확신케 함으로 그
것이 참됨을 안다. 그리고 이 성경
은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게 하는 지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티모이 「모든 성경은...표훈과 책
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
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딤후3:
16~17)로 한 것을 보아서 성경은 교
육을 위한 완전하고 충족한 유일한
기초이다.

3. 교육의 목표

세속적 일반 교육의 목표는 기독
교의 것과 다르다. 인본주의적 교
육의 기초는 성격적 교육 목표를 받
아 틀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
경은 교육에 있어서 유일한 선천과
계획의 인도임으로 모든 반대되는
자료에서 나오는 어떤 방향도 참된
교육의 목표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통용된 말
은 그 속에 교육의 본질이 회복된
지식의 질로써 결정된다는 뜻을 가
지고 있다. 그것은 또한 좋은 학교
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것이 최선의
교육이 되며 최고 학위를 가진 교
사가 많은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
라고 한다. 이런 잘못이 없다. 진통적
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에게
힘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와는 정 반대로 성경은 「하나
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길을 따라
서 행하는 것」이라고 언명한다.

우리의 교육 철학은 우리의 교육
의 기초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성경
이 말하는 교육의 목적에 귀를 기
울려야 한다.
먼저 성경을 요약한 신준과 요리

문답을 살펴 본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
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칼빈의 제네바 소요리 문
답 첫문답에도 비슷하게 「사람의 제
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
님을 알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소요리 문
답과 같이 하이델. 별. 소요리 문답
에도 사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문: 당신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
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답: 삶과 죽음에 있어서 몸과 영을
가진 나는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의
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에게 속한다. 예수는 그의 보배
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완
전히 속량하셨고, 미국의 세력에
서 견져 내지어 아니요는 머릴 하
나도 멀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신
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구원
에 도움을 준다.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나에게 확신케 하며 단 마
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
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
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
게 요구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
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무
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이
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룰 약이 되

지 아니하며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
려 소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
에 이르게까지 지말지라. 그는 몸
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
으로 연합하여 그 몸을 지라게 하
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4:11~16)

바울이 역설한 것은 사도, 선지
자, 전도자, 목사, 교사 등 직분에
분별이 없이 이들은 다 성도를 온
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부름 받았다고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범사에 그리스도
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소명을 받
은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여 사람에게 말씀 하셨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
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다.
(마22:37~40)

이 말씀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알려
진 것이다. 문제는 이 목적이 구체
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
문에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얼마나
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이 경에 있어서 교회와 학교
간의 유대가 참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제 부족은 보편적 목적
의 결여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회와 가정과 학교가 이끌어 가게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의 유산인 개혁교회에서는 교우들의 "개혁당"(be Reformed)을 제삼 강조한다. 성경은 어떨이나 어린이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골12:2)고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신자는 아주 보수적이며 또

<옛 사람>

- 이기적 사랑(자기애).....하나님과 이웃사랑
- 이기적 순종.....하나님과 권위에 복종
- 자아 중심.....하나님 중심
- 자아 봉사.....하나님과 이웃봉사

4. 교육의 평가

교육의 중요한 면 가운데 평가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교육제도나 학교는 다른 학교, 교육제도와 비교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교사는 학부형, 관리자, 이사회와의 감동, 판단을 받고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그리고 동료들의 판단을 받는다.

전국적, 국제적 판단 기준에서 개인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평가는 언제나 있어야 할 과정이다. 그런데 이 교육 평가는 어떤 표준에서 되어야 하는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다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참이나, 그것이 나에 평가 표준이 있다. 그러면 진리와 허위를 무슨 표준에서 결정 하겠는가? 물론 이것은 그것이 무례한 본원에 돌아가야 진과 허, 진실성과 확실성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거짓된 것으로 잘못 전해 되었다면 신하고 본질적이고 참된 교육이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적이다. 그들은 학교를 "개혁주의 학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량한 상태로 부려 아이들을 [말는 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으로 개혁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신자의 가장 도전적이며 고상한 사명임을 인식 하였고 때문이다.

<새 사람>

- 하나님과 이웃사랑
- 하나님과 권위에 복종
- 하나님 중심
- 하나님과 이웃봉사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영원하고 참된 기초 위에 확실한 지식과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므로 하나님의 본질적 표준이 그에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적 신앙 위락이 되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그 교육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숙하신 하나님인신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말씀은 진리의 하나님인 영감으로 계시하신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성경에의 정근으로 인하여 결정된다.

교육의 질은 자표의 품요, 많은 봉급, 시청각 교육제, 학위, 중서, 건물, 성공의 세속적 표준등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제적 과정과 전체적 생산의 관적으로 결정된다. (참조 문1: 15~20)

Allien, R는 「교회의 자발적 확장」에 말하기를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은 받는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관계를 전제한다. 그 관계를 제거하면 교육은 단편에 그 교육을 받는자에게 기독교 교육이 되

지는 못한다. (P. 112)
만일 누가 어떤 교사의 질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학파의 체계를 알고저 하면 그 교사, 그 학교, 그 체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를 보아서 결정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전체 포괄적이어서 학생과 교사에게 관한 유일하고 참된 진술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다. 그 안에 사랑, 순종, 지식, 자유의 확실한 목표를 찾을 수 있다. 그 안에 교수——학습과정의 모범적 예증을 찾을 수 있다. 그 안에 유일하고 참된 교육의 평가의 척도를 찾을 수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교육과 모든것을 판단할 수 없는 유일한 표준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 교역자 이동 ◆

- 최근 온 전도사 평강 하리교회에서 가락 친성 교회로
- 정순행 목사 군북교회에서 부산 성서 교회로
- 이명열 전도사 김해 송정교회에서 의령, 중교 교회로
- 전은상 목사 덕두교회에서 대저 제일 교회로
- 김덕진 전도사 창원읍교회에서 제일 신마산 교회로

<생명의 양식>

—계절학교 1970년도 응—

예수님과 함께 살자

四·六판 70면

값 50원

대한예수교 총회 출판부 발행